

정부·낙농가, 원유 차등가격제 '진흙탕 싸움'

농식품부-낙농협회, 우윳값 재산정 협상 중단
음용유·가공유 구분 '차등 가격제' 갈등 불씨

우유 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유(原乳)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을 두고 정부와 낙농 단체 간 협상이 1년째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다음 달 우유 가격 재산정을 앞두고 양측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는 가운데 낙농업계는 "최근 낙농협회가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낙농협회와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제도 개편과 원유 가격 결정을 위한 논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유 가격 재산정을 위한 정부와 낙농협회의 협상은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낙농협회가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낙농협회와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제도 개편과 원유 가격 결정을 위한 논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낙농협회의 갈등은 원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가 불씨가 됐다. 정부는 낙농가의 원유 납품 물량을 일정량 보장하고, 생산비에 따라 원유 가격을 책정하는 현행 '생산비 연동제'가 낙농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멸균 처리해 그대로 마시는 '음용유'와 치즈·버터 등 유제품을 만들 때 쓰는 '가공유'의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낙농 제도 개편안에 힘을 쏟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년간(2001~2021년) 유제품 소비량은 305만에서 458만으로 50.2% 증가했다. 수입은 65만에서 251만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원유 생산량은 234만에서 203만으로 13.2%가 줄었다. 자급률도 77.3%에서 45.7%로 31.6%포인트(p)나 감소했다.

2001~2020년 지난 20년간 국내 원유가격은 72.2% 올라 유럽(19.6%), 미국(11.8%) 등 주요국 대비 큰 폭으로 인상됐다. 유제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수입 원유로 충당하면서 국내 생산량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의 용도별 차등 가격제가 도입되면 음용유 가격은 현재와 같이 0당 1100원 수준을 유지하고 가공유는 800원대로 하락하게 된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 원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가공유 가격을 낮춰 국내 사용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낙농가는 음용유와 가공유 가격이 다르게 적용되면 농가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며 정부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농가에서는 유가공업체가 가공유를 중심으로 원유를 구매할 경우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근 물가 상승 압력으로 사료 가격도 치솟는 가운데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가격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낙농 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면서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새 원유 가격도 정해지지 않았다. 원유 가격은 매년 5월 통계청이 발표하는 우유 생산비를 토대로 협의를 거쳐 8월1일 생산분부터 반영된다.

농식품부와 낙농업계의 갈등이 장기화될 원유가격 결정이 늦어질 경우 우유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낙농업계는 원유 납품금지 등 강경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우유 대란이 발생하면 치즈 등 유제품뿐 아니라 빵, 커피 등 식료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부와 낙농업계 모두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과 낙농가 등과 협의를 지속하고 낙농협회에서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언제든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낙농협회는 "정부가 신뢰를 말하기 전에 낙농가들에게 믿음을 줬는지 반성부터 하길 바란다"면서도 "해묵은 감정으로 싸움을 걸어 우유 시장에 낙농가들은 피가 말라 가는 만큼 (정부가) 제발 터놓고 협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승호 기자



식음료업계, 휴가철 '아이스 당충템' 인기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간편한 아이스 간식이 주목 받고 있다. 볼레지수가 높은 무더운 날씨가 이어져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난 7월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종합 숙박·예약비트 플랫폼 여기어때가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0명 중 9.7명이 여름휴가를 떠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방역 조치 완화로 많은 사람들이 휴가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여름 휴가철 이동 시 즐길 수 있는 간식거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달콤하고 시원한 맛으로 무더위에 지친 기운을 회복하고 갈증도 해소할 수 있는 일명 '아이스 당충템'이 주목 받는다.

둘 코리아는 얼려먹는 과일주스 '후렛팝'을 선보였다. 열대과일의 100% 과즙을 그대로 담아 새콤달콤한 주스로 마실 수 있다. 6시간 이상 얼려 먹으면 사베트 식감의 시원한 아이스 바로도 즐기기 좋다.

'오렌지', '피치', '파인애플', '망고', '애플', '애플캐럿' 6종으로 구성돼 있어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떠나기 전 미리 얼려서 챙기면 입안 가득 시원함은 물론 무더위에 지친 기운까지 상큼하게 충전할 수 있다.

롯데푸드의 '롤샷 수박'은 한 입 크기의 얼음 알갱이 속에 수박 농축액을 첨가한 제품이다. 얼음을 씹는 순간 오도독 식감과 새콤달콤한 수박의 풍미가 입안에 청량함을 선사한다. 15kcal의 저열량으로 칼로리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다.

해태아이스크림이 출시한 '아이스가이 청포도'는 휴대용 미니컵으로 제작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고 시원 달콤하게 먹을 수 있는 얼음 아이스크림이다. 이 제품은 유제품을 베이스로 한 아이스크림보다 무겁지 않고 깔끔한 맛이 특징이다.

이동 시 차 안에서 흘리지 않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파우치나 컵 형태의 아이스 간식도 눈길을 끈다.

뉴시스



SSG닷컴, 여름 프로모션 건강식품 최대 70% 할인

SSG닷컴은 1일부터 7일까지 '여름방학 건강생활' 프로모션을 열고, 인기 건강식품과 숙면 관련 상품을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먼저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남짓 앞둔 수험생을 위한 건강식품과 먹거리를 엄선했다.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관장' 등의 홍삼 제품을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피로 해소에 좋은 'GNC', '오소몰' 등 멀티 비타민과 '듀오락'의 프로바이오티스(유산균) 제품도 준비했다.

이 밖에 목우촌, 허림이담의 삼계탕과 식탁 이야기 해신탕 등 보양식 밀키트도 40%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했다야 속 숙면을 도와줄 리빙 상품도 준비했다. '야들'의 '야들'이담의 삼계탕과 식탁 이야기 해신탕 등 보양식 밀키트도 40%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파르페 바이 알레르망' 침구를 최대 70%까지 할인 판매하며, 냉감 침구류부터 암막 커튼과 인테리어 조명까지 다양한 상품을 구비했다. 행사 기간 특가 상품은 '정관장' 등 7개 브랜드 상품 구매 시 최대 2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10%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이슬비 기자

'6천억 시장' 음식물처리기...뚝뚝해야 팔린다 'AI 무장'

올해 5000억~6000억원대 시장 성장 전망

지난 7월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000억원 규모였던 국내 음식물처리기 시장은 올해 5000억~6000억원대로 성장할 전망이다. 현재 국내 음식물처리기 보급률이 1%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1조원 규모로 확장되는 날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다.

시장이 커지면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다양한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제품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음식물처리기 전문 기업 포레는 최근 전자동 AI 로봇 음식물처리기 '에콰(ecop)'를 출시했다. 에콰는 AI 기술을 통해 자동 보관·자동 처리되는 노터치 기능을 구현했다.

특히 업계 최초로 음식물처리기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했다. 다양한 음식물 만큼 자동으로 에콰 앱에서 '에콰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적립된 포인트는 에콰몰에서 필터 구매 등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에콰 사용자들은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면서 돈도 버는 선순환구조의 착한소비 개념을 경험하게 된다.

웰리스는 처리용량 40의 음식물처리기 '클린 AI 스탠딩'을 출시했다. AI 기능으로 자동으로 음식물 무게를 감지하고 일정량이 잘 때까지 보관한다. 일정량이 되면 음성 안내 후 음식물 부피를 최대 92% 감량해준다.

이상이 감지되면 셀프 진단 후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기능도 내장됐다. 실제로 건조통을 잘못 장착했거나 제품이 이상이 있을 때 바로 알아챌 수 있도록 도와준다.

팅크웨어는 블루밴드 음식물처리기 '무무(MUMU)'를 출시했다. 무무는 음식물 투입부터 자동 분쇄, 식힌 등 전 과정을 AI가 통제·관리해주는 제품이다.

무무는 음식물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무게를 감지한 뒤 온도와 습도 등을 감안해 처리 시간을 조절한다. 음식물 쓰레기가 적정량 모이기 전까지 자동 보관 기능을 작동해 부패를 지연시키고 냄새 유발을 방지한다. 처리를 마친 뒤 줄어든 쓰레기 무게 정보와 탄소량도 표시해 준다.

최이슬 기자



'냄새와의 전쟁' 여름 '향기 케어' 찾는 소비자 ↑

무더운 여름철에는 식품이 쉽게 부패하고 땀도 많이 흘리면서 '향기 케어'를 찾는 수요가 늘어난다. 기업들은 개인의 취향과 공간 분위기 등을 고려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 7월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옷의 눅눅한 냄새는 섬유유연제를 활용하면 탈취와 섬유 보호 효과를 더할 수 있다.

크린텔의 '건조기용 섬유유연시트'는 부드러운 플로럴 머스크 향이 오래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허받은 수분 시트 기술로 건조 후 유연제 잔여물이 남지 않아 끈적임이 없다.

향색포도상구균과 대장균에 대한 99.9% 항균 시험과 피부 저자극 테스트를 모두 통과했다. 향광증백제 등 18종 유해 물질도 모두 검출되지 않아 안전성을 갖췄다.

빨래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섬유탈취제로도 옷의 냄새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 피죤의 '스프레이 피죤 시그니처'는 옥수수에서 추출한 강력 탈취 성분을 함유했다. 화이트 플로럴과 피치향을 담은 미스티겔린, 로즈와 지스민 향기가 나는 플라워페스티벌, 플로럴과 시트러스 향이 나는 아이스 플라워 3종으로 구성됐다.

해어나 바디도 향기 케어 제품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비건 뷰티 브랜드인 허스텔라의 니어바이 비건 바디케어는 무화과, 로즈, 베티버 등 자연에서 찾은 향을 바탕으로 만든 제품이다. 잔향이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비건 바디 콤플렉스, 에코 세라마이드 성분 등을 배합해 보습에 도움을 준다. 재활용 플라스틱 100%를 사용한 친환경 용기와 국제산림관리협회(FSC) 인증 단상자를 사용했다.

공간 전체를 향기로 관리하는 향기마케팅 전문 기업도 있다. 볼스윈 계열사 샌트온은 글로벌 호텔 체인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 호텔과 시그니엘, 포시즌스 등 국내 5성급 특급호텔 등에서 공간에 맞춘 프리미엄 향기마케팅을 진행 중이다. 롯데백화점, 무신사, 쿠팡이 등 여러 국내 대기업에도 향기 마케팅을 제공한다.

오유나 기자



필수 주방 가전으로 부상하고 있는 음식물처리기가 인공지능(AI)을 만나 더욱 스마트해졌다. 원터치에서 진입하면 '노터치'로 자동 처리와 보관은 물론 음성 안내 등 편의성을 높였다.

기름값 4주 연속 하락세...경유도 1900원대 진입

휘발유 가격, 이번주 1800원대 진입 예상

국내 기름값이 4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전국 경유 가격도 0(리터)당 2000원 밑으로 떨어졌다. 휘발유 가격은 이번주 1800원대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3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오후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일 대비 7.90원 내린 0당 1908.98원, 경유 판매가격은 전일 대비 6.24원 내린 1922.22원을 기록했다. 휘발유는 1600원대, 경유는 1700원대 주유소가 등장하기도 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5월 첫째 주부터 8주 연속으로 오르다가 이달 1일부터 유류세를 추가 인하(30~37%)하고 국제 유가 및 국제 석유제품 하락세 영향을 받아 4주 연속 내렸다.

이에 따라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은 지난 21일 1989.93원을 기록, 2달 여 만에 2000원 밑으로 떨어졌다.

유류세 추가 인하 직전인 지난달 30일과

비교해보면, 휘발유 가격은 2144.90원에서 전날까지 235.92원이 떨어졌고, 경유 가격은 2167.66원에서 245.44원이 하락했다.

휘발유 가격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이 1966원으로 가장 비쌌고, 강원(1939원), 전남(1932원), 충남(1930원)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는 1851원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경유 가격 역시 서울이 2042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고, 제주(2038원), 강원(2016원), 전남(2015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는 1951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정유업체 및 전문가들은 다음달까지 국내 기름값이 하락세를 나타내는 등 당분간 안정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정은 대한석유협회 팀장은 "국제유가가 안정적인 것과 더불어 석유제품 가격이 최근 5주 연속 내리는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이 지난달 보다는 국제 유가·제품가 하락세를

김재환 기자